

“보살계 세워 불도 걸어가라” 하동 쌍계사 주지 상훈·정대불사

하동 쌍계사(주지 상훈)는 4월 18~20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제 35회 보살계대법회 및 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수계법회는 쌍계사 말사인 부산 해원정사, 서울 해림정사, 부천 석왕사를 비롯한 경남 인근의 1300여 불자들이 동참했다. 첫 날은 보살계를 받기 위해 예불과 기도를 통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닦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수계식에는 쌍계사 주지인 고산 스님의 증명으로, 전제대화상 보광 스님, 갈마아사리 지하스님, 교수아사리 일해 스님 등이 계사로 등단했다. 둘째 날 수계식은 부산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이 증명법사로 봉행했다.

보광 스님은 수계에 앞서 “행복은 스스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것이며, 그 주인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며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 받은 보살계를 마음 속 굳건히 세워, 흔들림 없는 불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설했다.

회향일에는 경관과 계절 등을 머리에 이고 금강까지 옮기며

기도 정진하는 ‘장경 정대(頂戴)’를 봉행했다.

상훈 스님은 “前 주지 원정 스님의 뒤를 이어 조실 스님의 뜻에 따라 마애불 일주문 금강문 금담보수 상가이전 등 여러 불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禪), 다(茶), 음(僧)’이 아우러진 만등현다와 함께 다매전수회를 활성화시키고, 법패전수관의 설립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5회 육조봉찬회 정기총회 세부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2010년 사업계획 등에 관해 논의한 후 내년을 기약했다. 육조봉찬회는 쌍계사에 정상(頂相)을 봉안한 육조 해능 선사의 폰오 사상과 참선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1976년 고산 스님 발기로 결성된 신행 단체이다.

고산 스님은 정기총회에서 “태어날 때는 모두가 착한 부처인데 육을 하면 육하는 대로 빗나가기 마련이지만, 매일 108배를 꾸준히 하며 업장을 소멸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모두가 부처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며 “육조봉찬회를 통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 참다운 성불을 이루

사명연구소 설립 추진

표충사 사명 대사 입적 400주기 기념 춘계향사

입적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명 대사 입적 400주기를 맞아 다채로운 추모행사가 봉행됐다.

밀양 표충사(주지 재경)는 4월 17일 사명 대사의 입적 400주기를 기념해 ‘호국대성 사명성사 추모학술 행사 및 춘계향사(春季享祀)’를 개최했다.

학술제에는 △태상식 부산대 교수의 ‘입란과 입란 이후에 사명대사의 구국외교활동’ △한태문 교수의 ‘조선통신사와 사명당’ △이순욱 교수의 ‘근대 문화와 사명당 서사’ 등이 발표됐다.

재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명 대사에 대한 봉인된 역사를 풀고 그 가치를 계승시켜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종단과 국가에서도 사명 대사에 관한 관심을 갖고 사명 대사의 정신과 뜻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행사를 기점으로 ‘사명 대사 입적 400주기 추모사업 준비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까지 사명 대사 연구소의 법인 설립과 정기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행정적 네트워킹 구성, 전통의례 분야의 의례 재현 고증, 연구보고서 발간,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사명 대사 입적 400주기를 맞아 표충사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다.

또한 10월 조선시대 소설인 <사명대사>를 바탕으로 한 연극을 서울 대학로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사명 대사와 관련된 영화들을 모아 ‘사명 대사 영화제’ 및 기념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명 대사 선양회(가칭)의 창립 및 선양활동 △추추 향사의 국가적 제향으로 복원 정착 △사명당 연구소 설립 △‘사명문화제전’ 개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되고 있다.

올해 400주기를 맞는 사명 대사는 1610년 8월 26일 세남 67세·법남 54세로 입적했으며, 표충사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제향은 불교와 유교 의례가 공존하는 전통대로, 영조 때부터 27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명대사의 구국 애민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학술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추모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이선균 제9대 대불련 부산동문회장

대불련 부산지부 재기 버팀목 될 터

“대불련 부산지부 재학생들에게도, 동문회에게도 중요한 시기에 동문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대불련 부산지부와 동문회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4월 21일 오후 7시 부산시 초량 소림사 무량수전에서 제9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부산동문회장으로 이선균(61, 법명 무념·사진)씨가 취임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79년 8월부터 매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정기법회를 봉행해, 대불련 부산지부의 지난 역사가 고스란히 밴 소림사 도량에서 제9대 동문회장으로 다시 뛰게 됐다.

이선균 동문회장은 “제가 대불련 활동을 하던 1976년 당시에는 전국 107개 대학에서 총 600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활동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전국 대학의 30%에도 못 미치는 100여개 대학에서 소수의 회원만이 활동하는 등 너무나 위축되고 침체된 상황으로 변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회장은 임기 중 첫 번째 계획으로 “대불련의 활성화 및 동문회의 내실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문회 차원에서 현재 재학 중인 대불련 부산지부 소속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부산지역 사찰 및 교계 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해 부산의 포교하는 스님들의 모임인 ‘전법도량’(의장 심산, 동련 이사장과 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박수관, 광교항기롭게 부산모임 회장) 등이 잇달아 대불련 재학생들에게 후원 의 러브콜을 보내는 데에 이선균 회장은 재기의 희망을 발

견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대불련 부산지부의 존재위기와 그 원인에 관해 막상공문을 해왔다.

이 회장은 대불련 부산지부 동문회와 재학생들은 옛 명성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교계 및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예전 봉축 제등행렬은 우리 대불련과 동문 선배들이 주축이 돼 진행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제정하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도 사실 우리 동문회의 오대목 선배였습니다. 당시 용태 영 변호사와 함께 고교분투한 끝에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됐습니다. 그때의 열정적인 참여정신을 되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불련 재학생들은 젊은이다운 열정과 패기로 여러 교계 행사에 동참하고, 동문회원들도 연륜과 노련미로 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불법홍포에 이바지할 것을 밝혔다.

대불련가 1절 노랫말에는 “우리는 빛을 찾는 젊은 구도자, 불타의 혜명 받아 한마음 손잡고, 사방의 중생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기를 다짐해 맹세한 진리의 빛, 영원한 동지다”라며, 안으로는 수행정진을, 밖으로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자는 다짐이 오롯이 담겨있다. 대학생은 곧 사회로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젊은 지성인들이다. 그런 대학생들을 참다운 불자로 길러내는 것이 바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부산지부, 부산동문회의 역할일 것이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2010부산시민연등축제를 비롯한 여러 불교계 행사에서 젊은 대학생불자들이 동문회 선배들이 동분서주할 날을 기대해 본다.

박지원 기자



해동용궁사 포교 100년대계 발원

해동용궁사가 30년 중창불사를 회향하고 장학사업으로 포교 100년대계를 발원했다.

해동용궁사(주지 정압)는 4월 16일 대웅보전에서 ‘삼존불 봉불식’을 봉행하고, 30년간의 장기간 불사를 회향했다.

이날 주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기간의 작품인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을 봉안했다. 후불탱화는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이 조성했다.

정압 스님은 “한 불상을 모시면 한 부처님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도량에 삼존(三佛)이 탄생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영광이고 복된 날”이라며 “지금까지 발을 잡고 나무를 심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많은 중생들에게 풍요와 행복

으로 화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해동용궁사 사부대중과 함께 장학 및 교육, 포교, 복지 등 다채로운 실행 프로그램으로 사찰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한편 2008년 설립한 ‘해동정암장학회’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학생들을 선발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꾸준히 후원할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보통이 Sale 사용이 용이

전화 145,000
팩 02)2004-8216

“천안함 희생자여, 극락왕생하소서”

통도사, 수륙대제 안양지에 치어 방생

천안함 희생자를 위한 수륙방생 대법회가 열렸다.

통도사(주지 정우)는 4월 21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수륙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염불의식인 ‘범음법패’와 ‘방생의식’을 결합한 수륙대제(水陸大齋)로 진행했다.

수륙대제에 앞서 천안함 순국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묵념과 헌화, 발원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정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산 생명은 무명에서 벗어나도록 깨우쳐 살리고 억울하게 죽어 구원을 때도는 원혼들은 천도해 어려운 가정은 다



4월 21일 통도사에서 수륙방생 대법회가 봉행됐다. 사진은 범음법패 의식 장면.

시 일어서는 기회로 삼고 나라를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법패의식 후 최근 숲 보전을 위해 새로 조성한 안양지 연못에 치어 1만 여 마리를 방생하며 국태민안과 고혼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박지원 기자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연잎 찰밥

햇차

제다

실습

차문화

연수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 임곡: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 |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 전화: 061-285-0301,2 | 팩스: 061-285-0304 | choyeeta.co.kr | 후원: 무안군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많은 5월, 무안 회산백전지 인근에서 생산된 연잎으로 정성껏 찰 연잎찰밥을 대접하세요.

연잎찰밥 10개 30,000원 냉동포장 제조원: 일로농협 판매원: 초의차사업단

- 차씨를 무료로 드립니다.
- 김포공항 국내선 4F에서 무료시음 및 차씨 보급 행사를 합니다. (4월 15일부터~4월 30일)
- ※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 070-4107-8654

단 한 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한(최고금상)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우전은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세차 50,000원→20,000원(4월20일까지) 중차 30,000원→10,000원(4월30일까지) 배송: 4월25일~5월30일 ※ 행사기간 이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 됩니다.

차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 제다실습
 - 차 잎따기
 - 차의 종류와 제다법 특강
 - 제다실습 및 심사평가
- 실습 차 종류
 - 2010 햇차(녹차) · 청차 · 황차
 - 보이차 · 떡차 제다실습

※ 단체 · 개인 모두 접수 가능하며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다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 실습비: 1인 1만원, 차잎 1kg당 1만원~2만원 (5월 부터)

한국차문화연수

초의선사 행다법 한국의 차문화사 차의 정신, 다도관 한국전통 행다법의 역사와 방법 초의선사 현대의식

차에 관한 내용으로 석용운스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 단제한 신청 가능하며 단체인정에 따라 원하는 내용의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수비용 1인 1박 2일 2만원~3만원.

※ 초의선사(전남 무안군)에서는 연중 무휴로 차문화 견학 및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조선지역사박물관 ▲청의대사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차문화회관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